"순천大 의과대학 설립 승인 환영… 의료격차 해소"

시의회, 입장문 발표
"의료 인력 양성 지원할 것
차질 없는 개교 지원 필요"

전남 순천시의회가 교육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승인은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단합된 힘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 지역 간 의료격차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주민들은 치료를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다"며 "의과대학 유치는 골든타임 내에 온전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표류하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염원을 모으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고, 여수·광양시의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서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오체투지를 펼치며 유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의회는 "숱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 모두의 의지가 오늘의 결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28만 순천시민과 동부권 지역민,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 손훈모 순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각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의회는 오랜 세월 갚은 열원을 품고 힘써 온 서부권 지역민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절실한 바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 서부권 지역과도 뜻을 함께 모아 동서부 주민 모두가 더 나은 의료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지원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동작구의회, 남해군의회와 의정 교류
의정활동·시설 운영 사례 소통·공유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최근 구의회를 찾은 경남 남해군의회 의원 및 직원 등 20여명과 구의회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년 신청사 준공을 앞둔 남해군의회는 의정활동과 의회 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양 의회 간 교류를 위해 구의회를 방문했다.

강한옥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회 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천 남해군의회 의장은 환영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 신청사 개청을 마친 뒤 동작구의회 의원들을 초청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영수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지역은 달라도 구민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쓴다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남해군 특산물과 농업·수산업 현황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농업에 종사하는 남해군의회 의원들은 현장 경험을 나누고, 올해 시금치 작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해군 농수산물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상임위원회 소회의실과 본회의장, 미디어실 등을 둘러봤다.

구의회는 신청사 준공과 입주 후 약 1년간의 운영 경험과 시설 별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 신청사 준공을 앞둔 남해군의회와 관련 정보를 나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해남군의회, 제12차 의원간담회
생활체육등 현안 4건 보고 청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회는 최근 오전 제1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남교육지원청과 해남군으로부터 주요 현안 4건을 보고받아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남형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안) 추진현황(해남교육지원청) ▲생활체육(파크골프·게이트볼)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방안(스포츠사업단)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건설도시과) ▲경로당 남녀 공간 분리 및 부식비 지원, 재해구호기금 등 2026년 군정주요업무보고회 처리 계획(가족행복과) 등 4건이 다뤄졌다.

먼저 해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가 약 911명(22%) 감소하고, 학생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올해 공모에 신청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년 공모를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과 추가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강진 작천에서 북평 남창을 잇는 총연장 38.9㎞의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해남IC 위치 변경 건의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도 18호선 성산교차로~송문교차로 구간 3.0㎞ 4차로 확장사업이 총사업비 협의안에 반영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족행복과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공동급식, 시설 개선 및 남녀공간 분리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김종육 의장(가운데) 및 시의원들이 '오산시 교통대란 불러오는 덕절리 물류센터 건립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과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성시 덕절리 물류센터 건립 재검토를… 1日 교통유발량 3600대"

오산시의회 "교통량 반영을"
'공식 협의체 구성' 제안도

경기 오산시의회가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서부우회도로 재개통과 세교 2·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반영해 교통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주요 이동 경로와 교통량 집중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물류센터 준공 이후가 아닌 사업 추진 단계부터 구체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493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달 착공해 오는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예상한 하루 교통유발량은 약 3600대다.

오산시의회는 물류센터에서 1㎞ 이내에 있는 서부우회도로의 장래 교통량이 기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변 도로 확충 일정도 챙겼으면 제시했다.

의회는 전체 8.49㎞ 구간의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가 물류센터 준공 전에 완료된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준공 3개월 전 별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방식은 선제적 대응에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로망 확충계획과 연계한 교통대책의 실효성과 이행 시점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촉구 서한은 지난 4일 오산시의원들이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과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교통영향 재검토와 도로망 연계 대책 외에도 화성시·오산시·경기도·관계 경찰기관·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제안이 담겼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고양시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해결
"지적 정정·등기 절차 지연없도록 최선"

김학영 시의원, 市 대응 지적도

김학영 경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16년 가까이 이어진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집단민원의 조정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 회의에서는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가 최종 조정서에 서명했다.

보상금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하며,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일산서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왔다.

고양시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와 소송비용·지연손해금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달 중에는 관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말소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과 국유지 무상귀속,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합의를 이끈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중재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고양시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적 정정부터 대지권 등기까지 남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경기도의회, 6~19일 4개 실·국-6개 기관 행감
〈경제노동위원회〉

예산 집행 적정성등 검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6~19일 14일간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경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개발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건전성도 살펴본다.

특히 주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사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기술학교, 킨텍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서대문구, 지역 내 대규모 국제문화행사 시설 정비·안전관리 지원을"

강민하 구의원, 조례안 발의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승인·지원하는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에 한해 시설 정비와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대문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것으로, 서대문구에서 행사가 직접 개최되지 않더라도 지역내 시설이 행사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에는 공연장·전시장 등 시설과 공간 제공, 교통·주차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의 신축·개수·보수·안전점검, 참가자와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포함됐다. 지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과 주민·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승인하거나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단순 민간단체 행사와 상업적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의원은 문성호 전 서울시의원과 지원 방안을 연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최하는 제3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강동구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문제 논의

서울 강동구의회는 최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지역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시설 이용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지역사회 이용시설 인터뷰 영상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 뇌병변 장애인이 겪는 편의시설 이용 문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차별 없는 시설 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우열 의장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강동구를 만드는 데 강동구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조용근 송파구의회 부의장, 위례트램 개통 대비 점검

조용근 서울 송파구의회 부의장이 위례트램 개통에 대비한 주변 보행시설 정비와 장지동 상생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송파구청 도로관리과·공원녹지과·치수과 관계자들과 위례트램길과 위례호수공원을 방문해 파손된 보도블록과 데크, 노후 벤치, 트램 주변 조경 상태 등을 확인했다.

그는 "보행로와 조경, 벤치 등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의 협업을 요청했다. 호수공원에서는 시설 정비계획과 주민들이 요구한 북측 스탠드 조성 필요성을 살피고, 음악분수·호수경관·트램을 연계한 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장지동 848번지 아이코리아 부지의 상생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육영학교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검토 중인 계획안은 약 4만183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03가구와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 부의장은 통학차량 진출입, 보행 안전, 공사 중 소음·분진 등에 관한 학부모와 주민 우려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공모

서울 은평구의회가 4~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의회는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 지역 대표성, 분야별·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출장 필요성과 출장자·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자는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등 방문

서울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최근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먼저 선유동1로 80에 위치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다. 관제센터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지역 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55곳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관제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무단투기 발생 추이를 고려해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무단투기가 줄어든 지역의 CCTV를 신규 상습 무단투기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단속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림로 197 소재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해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청사 이전 등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이용 편의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청 이후에도 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노진경 종로구의원,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요청

노진경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은 겨울철 결빙에 대비해 부암·평창 일대 급경사지의 도로 열선 설치와 계단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노 의원은 최근 종로구청과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평창 4길·평창8길·평창10길, 금보성아트센터 주변 등 보행 취약 구간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경사로와 계단이 많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고 겨울철에는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현장에서 노 의원은 도로 열선과 계단 설치·정비, 전신주 정리 필요성을 전달했다. 지형과 실제 통행 여건을 고려해 개선 방안과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